



SPECIAL STORY

201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별나눔이야기

희망의 씨앗

한국의 장기증 현황과 교회의 역할

행복의 씨앗

부산 세계 개발 원조 총회 - 가난 나눔 그리고 교회

# 첫마음

1월 1일 아침에 찬물로 세수하면서 먹은 첫마음으로  
1년을 산다면,

학교에 입학하여 새 책을 앞에 두고  
하루 일과표를 짜던 영롱한 첫마음으로 공부를 한다면,

사랑하는 사이가,  
처음 눈을 맞던 날의 떨림으로 내내 계속된다면,

첫 출근하는 날,  
신발끈을 매면서 먹은 마음으로 직장 일을 한다면,

아팠다가 병이 나은 날의,  
상쾌한 공기 속의 감사한 마음으로 몸을 돌본다면,

개업날의 첫마음으로 손님을 언제나  
돈이 적으나, 밤이 늦으나 기쁨으로 맞는다면,

세례성사를 받던 날의 빈 마음으로  
눈물을 글썽이며 교회에 다닌다면,

나는 너, 너는 나라며 화해하던  
그 날의 일치가 가시지 않는다면,

여행을 떠나던 날,  
차표를 끊던 가슴 땀이 식지 않는다면,

이 사람은 그 때가 언제이든지  
늘 새 마음이기 때문에

바다로 향하던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진다.

- 정채봉



www.obos.or.kr | **2011 Winter Vol.12**

<b>여는 글</b>	<b>02</b>
첫마음	
<b>Special Story</b>	<b>04</b>
201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별나눔이야기	
2011 부서별 주요사업 결과	
<b>희망의 씨앗</b>	<b>08</b>
한국의 장기기증 현황과 교회의 역할	
<b>공감, 나누는 세상</b>	<b>10</b>
생명을 통한 부르심	
<b>고마워요, 사랑해요</b>	<b>12</b>
‘2011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개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 열려	
<b>행복의 씨앗</b>	<b>14</b>
부산 세계 개발 원조 총회 - 가난, 나눔, 그리고 교회	
<b>월드 On Air</b>	<b>18</b>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까지	
<b>현장 속으로</b>	<b>19</b>
2011 연말연시 나눔 토크콘서트, “별을 따줄게”	
<b>OBOS NEWS</b>	<b>20</b>



#### 표지이야기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성탄절을 맞아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는 어린이들에게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5일 서울성모병원 소아병동을 찾은 본부 민경일 신부와 피겨여왕 김연아 선수, 오상진 아나운서가 환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한마음한몸 발행일 2011년 12월 20일 통권 제 12호  
 발행인 김용태 발행처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편집디자인 굿모닝글 글·사진 홍보팀  
 출력·인쇄 프라이트 주스변경 및 문의 후원관리팀  
 | 02.774.3488 | obos@catholic.or.kr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 발행하는 계간지 “한마음한몸”은 후원자들에게 무료로 배포됩니다. 한마음한몸의 내용은 인터넷 (<http://www.obos.or.kr>) 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소식지의 저작권은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있습니다.

Copyright©ONE BODY ONE SPIRIT. all rights reserved

# 한눈에 보는 2011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월별나눔이야기

2011년 올해, **사랑**해주시고 **후원**해주시고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월

- 2011 한마음한몸기금 국내사업(국내사회복지 산하단체, 사회사목분야 단체 등) 총 719,679,000원 지원(1/1~12/7 기준집계)
- 2011 국제기금협력사업(6개국 10개사업) 638,206,967원/  
국제개발협력사업(8개국 12개사업) 545,596,151원/  
인도적 지원(3개국) 739,747,842원 지원(1/1~12/7 기준집계)
-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1기 캄보디아 파견(1/4~18)
- 연중 나눔캠페인 '희망·행복의 씨앗을 심는 2011년' 시작
- 사업현장 방문 - 몽골(1/18~25), 캄보디아(1/20~27)
- 본부 국제장기자원활동가 파견(몽골 김성수 활동가)



희망, 행복의 씨앗을 심는 2011년

2월

- 김수환 추기경 선종2주기 희망의 씨앗심기 선포식, 장기기증 거리 및 명동성당 캠페인(2/16)
- 자살예방센터, 자살예방상담 매뉴얼 발간
-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9년 연속 선정 (보건복지부 선정)
- 생명운동부 윤경중 부장, '생명의 신비상' 수상
- 2011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놀이터 개최



희망의 씨앗심기 캠페인

- 2011 지구시민교육 개시(압구정중, 원목중, 태랑중학교)
- 캄보디아 사업현장 방문(4/4~11)
- 서울대학교 신사동성당, 공덕동성당 생명나눔캠페인(4/9~10)
- 의정부 YWCA '지구시민강의'(4/19)
- 본부장 김용태 신부 '주안불교'와 특집좌담



지구시민교육

4월

3월

- 일본대지진 피해 긴급구호자금 5만달러 지원(3/15)
- 한국NGO 해외봉사단 파견 (몽골 구자열 단원, 캄보디아 유진희, 김소령 단원)
- 본부, KOICA 민간단체부분 유공기관 감사패 수상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 개소1주년 기념행사(3/22)
- 사순절 '희망의 씨앗' 전국 교구 동시캠페인 개최
- 몽골 사업현장 방문(3/5~11)
- 서울대학교 서초동성당 생명나눔캠페인(3/28)
- KoFID 정책토론회 참석



KOICA 감사패 수상

- 한미한금 봉헌의 달
- 10만 번째 장기기증 희망신청자 탄생(이수진씨, 신사동성당)
- 아이티 사업현장 방문(5/24~6/6)
- 자살예방센터 개소1주년 기념 '생명친구가 되어주세요' 연중캠페인 실시
- 한국국제협력단, 2011 '새마을리더 해외봉사단 강의'(5/26)
- 전국대학순회,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모집 캠페인 전개
- 서울대학교 갈현동성당 생명나눔캠페인(5/28~29)



조혈모세포 기증 희망자 모집 캠페인

5월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오 25,35~36)

- 창립23주년 ‘청소년과 함께 하는 자살예방캠페인’ 개최(6/11)

- ‘제3회 국제개발 NGO정기포럼’ 참가

- 본부, ODA정책 워크숍 참석

- 피아니스트 오펜니코프 나눔연주회

- 한마음한몸 봉사단 성지순례

- KBS 특별생방송

‘시청자와 함께 생명을 나눔시다’ 출연



자살예방 캠페인

6월

- 제1회 명동생명문화축제 개최

- 제2회 대한민국 나눔대축제

- 지구촌빈곤퇴치의 날 캠페인 전개

- 경희대학교 교양과목 특강

‘따뜻한 이웃되기’ 진행

- 연세대학교·존스홉킨스대학교 주최

‘국제재난대응 전문가 과정’ 참여

- 서울대교구 삼성동성당

생명나눔캠페인(10/8~9)



제1회 명동생명문화축제

10월

7월

- 한국장기증네트워크,

‘장기 및 조직기증 바로알기’ 워크숍 참석(7/8)

- 본부, 생명수호 홍보대사 탤런트 서현진 씨 위촉

- 국제청년자원활동 ‘따앗누리’ 12기 몽골파견(7/4~18)

- 생애첫기부 100번째 가족 탄생

- 사업현장 방문 - 몽골(7/18~26), 캄보디아(7/21~29)



서현진 홍보대사 위촉식

11월

- 태국 긴급구호자금 2만5천달러 우선 지원

- 2011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개최

- 위령성월맞이 나눔캠페인 ‘위대한 유산’ 전개

- 부산세계개발원조 총회 및 세계시민사회포럼 참석

- 생애첫기부 200번째 가족 탄생

- 서울대교구 구파발성당

생명나눔캠페인(11/20)

- 아이티사업현장 방문(11/29~12/8)

- 인권재단 ‘인권에 기반한 개발협력

프로그램 전문가 과정’ 참여

- 장기기증 홈페이지

www.obos3042.or.kr 개설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 한우리 인성회 ‘장애인 아영대회’ 장기기증 캠페인 (8/10)

- 유네스코 아시아 청년포럼 참가(8/22~26)

- 본부장 김용태 신부, KBS한민족방송

‘종교와 인생’ 특집출연

- KOICA 해외봉사단 강의



유네스코 청년포럼

8월

9월

- 한미헌금 봉헌의 달

- 2011 ‘생명사랑대상’ (네트워크 부문) 수상

- 2011 원조·개발효과성 서울시민사회포럼 참가

- PCM 몽골현지교육 (9/5~9),

KoFID 워크숍

- 서울대교구 동작동성당

생명나눔캠페인(9/17~18)



생명사랑대상 수상

- 터키 긴급구호자금 2만5천달러 우선 지원

- 백혈병·난치병환아를 위한 ‘산타가 되어주세요’ 전개

- 연말연시 이웃돕기 모금 캠페인 ‘별을 따줄게’ 전개

- 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생명나눔강의 (12/8)

- 본부 홍보대사 탤런트 양미경,

제4회 한국나눔봉사대상 ‘대상’ 수상



산타가 되어주세요

12월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2011년 부서별 주요사업 결과



## 2011 국제협력사업 및 인도적 지원

●●● 본부 국제협력부는 미얀마, 캄보디아, 네팔, 부룬디, 케냐 등 총 10개국에서 17개의 프로젝트에 총 709,735,404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으로부터 2개 사업(몽골, 캄보디아)에 총 352,347,714원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두산 지정기탁)로부터 3개 사업(캄보디아(2개), 파키스탄)에 총 121,720,000원을 각각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를 통하여 최빈국과 개발도상국의 지역 사회 발전과 여성 자력화, 지속가능한 교육 개선 및 확대 등 지구촌빈곤퇴치와 사회정의증진을 위하여 지구촌 곳곳의 힘이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큰 지진으로 많은 피해를 입은 아이티와 일본, 터키 그리고 동아프리카 기근, 최근에 발생한 태국 홍수 피해지역 주민들 및 아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총 739,747,842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재해재난으로 큰 어려움에 직면한 이들이 희망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노력했습니다. 본부의 노력에 함께 해주신 협력기관들과 특별히 주도적으로 참여해 주신 현지 지역주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본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주시고 후원해 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2011 생명나눔운동 사업보고 (2011.1.1~11.30 기준집계)



### 1. 장기기증희망자 모집사업 13,932명

●●● 故 김수환 추기경님의 각막기증을 계기로 전 가톨릭교회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장기기증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불러 일으켰고, 올해도 13,932명이 장기기증운동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회적으로 장기기증 및 생명나눔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특히 장기기증 인터넷 홈페이지 [www.obos3042.or.kr](http://www.obos3042.or.kr)를 개설하여 인터넷에서도 장기기증 희망신청이 가능케 되었습니다. 본부는 더욱 성숙된 자세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생명나눔 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앞장서겠습니다. 생명나눔운동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희망의 씨앗입니다.”



## 2.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사업 3,160명

... 본부는 지난 2003년 5월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조혈모세포기증희망자 모집기관으로 9년 연속선정되어 2011년 한해 동안 전국 캠페인을 펼친 결과 총 3,160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9년 누적 합계:28,790명)했습니다. 본부의 모집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182명의 환우가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나눔이 생명의 기적을 낳았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3. 환우지원사업

... 본부는 2011년 한 해동안 백혈병·난치병 환아 12명에게 총 9천6백2십만원과 장기이식대기 환우 4명에게 총 3천8백만원을 지원하며 희망이 멈추지 않도록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성탄절이 되면 백혈병·난치병 환아지원 사업 연계병원과 전국 가톨릭교구 산하 19개 병원 소아병동 입원 환아 1,400명에게 4,000만원 상당의 성탄선물을 전달하는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삶에 대한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습니다.

## 2011 자살예방 사업보고

... 한마음한몸자살예방센터는 명동생명문화축제, 거리캠페인 등을 진행하였으며, 300여 명의 청소년 생명수호천사들과 생명수호천사 대표 텔런트 서현진씨가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고등학교, 복지관, 본당, 사회복지관 등 15개 기관 6,000여 명이 자살예방교육에 참여하였고, 자살예방활동가 양성교육을 통해 자살 중재 인력들을 양성했습니다. 자살위기자들을 위한 전화상담(1599-생명친구(3079))과, 사이버상담([www.3079.or.kr](http://www.3079.or.kr)) 그리고 2011년 12월부터 면접상담과 자살자 유가족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진행됩니다. ⊕





# 한국의 장기기증 현황과 교회의 역할

-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 -

글 ● 생명운동부장 윤경중 요한보스코



... 몇 시간씩 신장투석으로 힘들게 생명을 이어가지만 그 와중에도 혹시 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두고 갈지도 모를 어린자녀를 생각에 애타는 어머니의 애처로운 사연이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합니다.

이처럼 가슴 아픈 사연을 안고 고통 속에 장기이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2011년 8월 현재 우리나라에 각막과 조혈모세포 이식대기자를 포함하여 2만명에 달합니다. 그러나 한 해에 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1500회를 웃도는 정도라서 이 분들이 모두 이식을 받아 건강해 지려면 산술적으로 13년 정도 걸립니다. 13년이라는 세월은 장기부전으로 고통 받는 이들에게는 어마어마하게 긴 세월이고, 이식을 기다리던 중에 많은 분들이 사망할 수도 있는 긴 시간입니다.

이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일까요? 老母를 홀로 두고 떠나야 하는 아들, 아무것도 모르는 보채는 어린자녀를 두고 떠나야하는 어머니, 아직도 이 사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청년, 한치 앞도 볼 수 없어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이들에게 우리는 '희망'을 줄 수는 없는 것일까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2000년 전 예루살렘의 한 젊은이가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소경을 눈뜨게 하고 아픈 이들을 측은한 마음으로 보시고 낮게 해주던 그 젊은이. 우리는 그러한 그분에게서 '희망'을 보았기에 그분을 '메시아'라 부릅니다.

그분은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요한 15. 12-13)”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중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자 지상명령입니다. 즉,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도리요, 길이므로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神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창조하였기에 사랑으로 창조된 그 모습대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후반부에서 '친구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하시면서 사랑의 행위 중에서도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는 사랑이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가 믿는 그분의 말씀과 행적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써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이루는 우리 신자들이 앞선 언급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일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사셨던 故 김수환 추기경께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가시는 길에 당신의 두 눈을 앞 못보는 이들을 위해 내어 주셨고, 그 사랑의 마음은 엄청난 추모행렬과 수십 만 명의 장기기증 희망자들 참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주는 희망입니다. 또 사랑의 열병이고, 참으로 자연스러운 사랑에너지의 흐름입니다. 큰 사랑에서 우리들의 작은 사랑으로 사랑은 흘러 넘쳤고, 그 넘친 사랑은 보다 많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에게로 다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로 인하여 보다 풍요롭고 아름다워 졌습니다. 마치 강물이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흘러넘쳐 큰 바다를 이루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통해서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생명의 복음' 회칙을 통해서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영웅적인 행위들 중 특히 칭찬할 만한 예는 바로 윤리적으로 합당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사후 장기기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1)</sup> 이러한 의미에서 가톨릭교회는 윤리적, 의학적 차원에서 장기이식을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것이며, 타인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이자 숭고한 행위 중 하나라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의 모든 신자에게 사후에 이루어지는 장기기증 희망에 참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벼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 놓는 사랑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교회는 비로소 우리의 메시아처럼, 김수환 추기경님처럼 세상에 '희망'이 될 것이고,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은 '희망의 씨앗'을 심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



1)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 1995.3.25., 86항 /  
요한바오로 2세 「혈액과 장기 기증자들」, 1984.8.2.,  
The Pope Speaks 30 : 1호, 1985, 1-2면.

## 생명을 통한 부르심

우리가 받은 성소, 생명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

글 ● 생명운동부 이선애 제수위나 수녀

올해는 유난히도 비가 많았고 산사태와 물난리로 아직도 많은 이들이 몸서리치는 고통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특히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누군가의 관심과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웃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려 하는 것은 생명을 나누고 생명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위해 세상에 파견되었으며 생명에 봉사하는 것이 오히려 의무로 여겨야 한다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생명의 복음]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 장기 손상 환자에게 새 생명을 열어주는 장기기증에 대한 사회저변의 긍정적인 분위기 확산에 큰 몫을 하신 고 김수환 추기경 선종의 역사적인 일화를 떠올리게 되는 계절입니다. 2009년 추기경 선종 당시와는 달리 국내 장기기증에 대한 현실참여는 그리 활발하게 이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본부로 한 부부가 찾아 오셨습니다. 결혼 35주년을 맞아 뜻있는 일을 하고 싶어 장기기증을 결심하여 부부가 함께 본부를 찾은 것입니다. 부유하거나 화려하지 않은 삶의 중심

에서 그분들이 진정 찾은 것은 생명을 나누는 일이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전화문의를 통해 본인도 신청을 하였지만 뜻 깊은 일이라 이웃에게도 권했더니 기꺼이 동참하고자 해서 신청서를 보내 달라 것이었습니다. 본부를 찾아 장기기증을 서약하는 이들 중에는 서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얼마나 뿌듯해 하는지 모릅니다. 생애 가장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사후 장기기증을 위해 장기기증 신청 서약을 한 날부터 몸을 잘 돌보아야겠다고 말하는 젊은이들까지 생명을 나누는 첫 걸음이 오히려 기증신청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는 듯합니다. 이분들이 진정으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느님의 생명 안에서의 현존과 그것을 통한 자신들의 존엄한 생명을 찾고자 하는 내면의 부르심에 따른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소입니다. 우리가 찾고자하는 것은 바로 이 진정한 생명이며 나눔으로 얻어지는 소중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법령이 개정되면서 운전면허증 뒤에 장기기증 란이 새로 이 도입돼 본인이 직접 기증을 원하는 장기를 표시 할 수 있게 되어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때 가족의 동의 없이 곧 바로 장기를 원하는 환자에게 이식할 수 있게 되었다 합니다. 우리나라도 2007년 9월부터 운전면허증에 장기기증 표시를 하고 있다지만, 뇌사 시 가족동의 등의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아직 우리 문화 안에서는 뇌사 시 가족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아서 장기이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애타는 일입니다. 가족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많은 이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을 일이지만 뇌사자 가족들의 반대로 기증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기증자는 줄고 수혜자들의 대기기간이 평균 3년 이상으로, 그마저도 병세가 악화되면 가혹한 기다림 끝에 사망에 이르는 등, 장기이식의 기회가 와도 이식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해야하는 빈곤한 생명이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2006년부터 이식비용부담으로 치료를 포기 하고 무너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장기이식대기자 및 무료개안 진료비 지원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부에서는 열일곱 분의 소중한 생명을 통해 소외된 곳에서 생명으로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참 생명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나비들의 작은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 폭풍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론(Butterfly effect)은 우리 삶 안에서도 종종 체험되어지곤 하는데, 우리의 긍정적인 생각과 행동이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게 드러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니다. 그러나 이러한 날갯짓이 모이고 모여서 생명으로 이어진다면 우리의 동참이 큰 의미가 되고 기적이 될 것입니다. 작은 날갯짓으로 생명을 살리는 진정한 부활의 삶을 위해 우리 각자가 받은 소명으로 함께할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나눔이고 주님께 대한 응답인지요! 우리는 모두 하느님의 생명을 지녔으며 이웃의 생명 안에 현존하시며 부활의 신비체를 알아볼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할 때입니다. ☪



무료개안 및 장기이식 진료비 지원사업

● 후원계좌 신한 327-05-023289 예금주 (재)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 문의 02-727-2293

## ‘2011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개최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지난 11월 13일, 가톨릭중앙의료원·김수환추기경연구소와 함께 ‘2011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를 열고 장기와 조혈모세포 기증을 통해 생명 나눔의 참사랑을 실천한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렸습니다.

●●● 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사업 ‘희망의 씨앗심기’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 반포동 가톨릭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이날 행사는 장기기증자 가족과 장기기증을 약속한 이들이 함께 모여 장기기증자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이웃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로 펼쳐졌습니다.

장기기증자 가족과 희망자, 관련 의료진 등 500여 명이 함께 한 특별미사에서 한마음한몸운동본부장 김용태 신부는 “헌혈과 장기 기증은 영웅적 사랑의 실천”이라며 “거룩한 사랑을 실천한 이들을 기억하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미사 중에는 서울성모병원에서 장기를 기증하고 고인이 된 홍종예(알비나)씨를 비롯한 88명의 장기기증자 유가족과 본부가 진행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캠페인에 참여해 실제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김민규씨를 비롯

한 53명의 조혈모세포 기증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캠페인 활성화에 도움을 준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대학생사목부와 경원대학교 가톨릭학생회 ‘마티티아’, 장기기증 캠페인에 적극 참여한 인천교구 생명사랑운동본부와 서울 서초동본당에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육신의 아픔으로 고통받는 이와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깨끗한 몸과 마음을 봉헌함으로써 생명의 빛이 될 것을 거듭 다짐했습니다.

한편, 봉헌의 날 미사에 앞서 펼쳐진 축하공연에서는 박진아 작가의 ‘희망의 씨앗’ 샌드애니메이션과 가수 김도향, 신계행, 평화방송 소년소녀 합창단 등이 출연해 아름다운 노래와 연주를 선사했으며, 로비에서는 2011년 생명나눔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회도 열렸습니다. ⊕



1. 2011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에서 장기기증을 통한 희망의 씨앗이 세상에 뿌려짐을 알리는 샌드애니메이션이 상영되고 있다.
2. 인사말씀을 전하는 본부장 김용태 신부
3. 전체 기념촬영
4. 생명나눔 사생대회 수상작 전시
5. 장기기증자 봉헌의 날 특별미사





## 백혈병·난치병 환아 위한 ‘미리~ 크리스마스!’ 「산타가 되어주세요」 행사 열려

▲ 환아들이 즐거운 레크레이션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지난 12월 15일(목) 오후 2시, 서울성모병원 소아병동. 이곳에서 백혈병·난치병으로 아파하고 있던 어린이들의 열굴에는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산타클로스와 함께 피겨스타 김연아 선수가 찾아 왔기 때문입니다.



◀ 너, 이 언니 누군지 알지?

이날 장기간 입원해 있으며 병마와 싸우느라 지쳐있던 어린 환자들은 성 베네딕도회 왜관수도원의 류 에프렘 수사의 진행에 맞춰 레크리에이션을 하며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빨간 산타 모자를 쓴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는 김연아 선수와 함께 환아들에게 담요와 탁상달력, 스포츠용품(마스크) 등 예쁘게 포장한 선물을 나눠주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를 위한 치료비도 전달했습니다.



이날 소아병동은 여느 때와 달리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으며, 독한 항암제 때문에 머리카락이 한 올도 남지 않고 빠지고 빈혈로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던 아이들은 평소 주사 맞기 싫어 눈이 퉁퉁 붓도록 울곤 했지만 이날만큼은 김연아 선수도 만나고 신나는 공연도 보고 산타할아버지의 푸짐한 선물도 받으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성탄절을 맞아 12월 12일~24일까지 전국 19개 병원 소아병동의 백혈병·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환아 1400여 명과 본부의 치료비 지원을 받은 환아 90명에게 총 4000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전달했습니다. ⊕

1. 산타와 루돌프 인형과 함께 찰칵~
2. 백혈병 환아들에게 선물을 전하는 민경일 신부 (산타복장), 김연아 선수, 오상진 아나운서

# 부산 세계 개발 원조 총회<sup>1)</sup> - 가난, 나눔, 그리고 교회

## 인간 존엄성 회복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글 ● 민경일 아우구스티노 신부  
/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본부장

이 글은 지난 11월 29일~12월 1일 부산에서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세계 개발원조 총회'가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고자 쓰여진 글로서 가톨릭신문(11월20일자, 오피니언 칼럼)에 특별기고한 글입니다.

1) 금년 11월 29일-12월 1일 사이에 부산에서 OECD/DAC(개발원조위원회) 주관의 "세계 개발원조 총회"가 열립니다. 이 글은 이 회의를 맞아 이것이 우리 교회와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소개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고자 쓰여진 글입니다.





## 1. 지구상의 가난과 원조

... 우리는 원조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상에는 많은 가난한 나라들이 있고, 그들 중 일부는 빈곤국(최빈국), 혹은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 그들을 돕는 것, 특히 대개는 경제적 수단으로 그 나라들을 도와주는 것을 ‘원조’라 합니다. 원조의 대부분은 정부의 기금이나, 혹은 우리들도 많이 하고 있는 개인적 기부들이 모여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원조는 왜 하는 걸까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기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바람이 불듯이, 그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곳에서 그렇지 못한 곳으로 흘러 가는 것이 원조일까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원조의 이유’를 말하고자 할 때, 쉽게 생각하는 것이 한국 전쟁 이후의 우리나라의 가난했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이 끝난 직후에 아무 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고, 그렇지만 세계 선진국의 원조를 받아 그것을 마중물 삼아 국민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가난을 극복했다. 그리고 어느덧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들의 모임이라 하는 OECD 회원국이 되었고, 원조를 베푸는 나라(공여국)들의 모임이라 할 수 있는 OECD 내의 ‘개발원조위원회(DAC,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의 24개 회원국 중 하나로, 지난 2009년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의 모범이며, 이제 우리는 우리나라의 가난 극복 역사를 바탕으로 세계의 가난한 나라들을 도와야 한다.” 이상이 특히 우리나라 정부를 중심으로 많은 원조기관들이 원조의 이유, 혹은 근거로 많이 말하는 대답입니다.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이라도 누군가를 도와야 할 것만 같습니다.



## 2. 원조의 복음적 이유

... 하지만, 이런 이유로는 원조의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적어도 주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는 그래서서는 안 됩니다. 위에서 말한 것에는 이른바 “받은 것이 있으니 주어야 한다”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논리들은, 가난하지 주어야 한다”는 경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러한 논리들은, 가난하지 않았던 저 많은 (선진) 공여국들의 오랜 원조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미국이나 대부분의 서유럽 국가들은 원조를 받은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가난한 나라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받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줄 수 있었을까요? 그저 단순한 경제 논리로 이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원조의 논리를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하느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모상대로(창세 1,26) 만드셨습니다. 여기에 바로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는 태초의 평등한 모습을 잃어 버리고, 이 세상에 ‘가난’의 모습이 존재하게 되었죠.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때,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은 위협을 받게 됩니다. 오늘날 지구상의 1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하루에 1,500원도 안 되는 생계비로 살아갑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없어 쉽게 병에 걸리는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평균 수명이 30대입니다. 그저 목숨을 부지할 수 있을 만한 최소한의 음식도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은 이미 방송이나 언론을 통해

잘 아실 것입니다. 지독한 가난 앞에서 인간이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기란 어려운 일입니다. 가난은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모상을,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구조적 악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가 찾을 수 있는 원조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의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굶주리는 민족들이 오늘 부유한 민족들을 향하여 처절히 호소한다. 교회는 이 처절한 부르짖음을 귀담아 듣고 함께 괴로워하며 모든 사람들을 불러, 도움을 청하는 이 형제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펴도록 요청하는 바이다.” (교황 바오로 6세, ‘민족들의 발전’, 3항)

예수님께서서는 율법학자나 바리사이가 아니라 죄인들, 창녀, 세리, 병자들과 즐겨 어울리시고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께서서는 이제 그들을 ‘하느님 나라의 식탁’이라는 가장 완전한 공동체에 받아 주십니다. 그들이 잃어 버렸던 하느님의 모상을, 인간 존엄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며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알려주신 바를 따라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존엄성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은,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모습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는 하나의 ‘성사적 행위’인 것입니다. 원조는 이미 하나의 성사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세상과 다르게 ‘원조’에 임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 3. 원조를 넘어선 개발, 그리고 부산 세계 개발원조 총회와 교회의 사명

... 개발 혹은 발전(Development)은 우리나라에서 때로 부정적 의미가 담긴 말로 많이 인식되어 왔지만, 이 맥락에서의 개발은 좀 더 통합적인 의미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님은 같은 회칙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발전은 경제적 성장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발전이 올바른 것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 전체와 인류 전체의 발전 향상이 전체적인 것이라야 한다(‘민족들의 발전’, 14항).” 많은 선진 공여국들이 경제적 도움 수준의 “원조”의 효과에 대해서 논의해 온 것에 비해 교회 기구들을 포함한 지구촌의 많은 시민 사회 단체들(CSO 혹은 NGO)은 원조를 통해 개도국 사람들의 실제 ‘삶의 질’이 변화되기를 포함하는 “개발”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함을 이야기 해 왔습니다.

이번 달 말, 전세계에서 오는 2,0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부산에서 있게 될 “세계 개발원조 총회”는 바로 이러한 흐름에서 “원조”를 넘어 “개발”을 이야기 하게 될 중요한 의미를 가진 회의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교회가 태초부터 바라 오던 인간 존엄성, 하느님의 모상의 회복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선취와도 같은 선상에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의 카리타스(Caritas)를 중심으로 한 교회 개발원조 기관들도 이 회의에 시민사회 단체의 일원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그것은 이 회의가 단지 경제적인 논리에서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 안에서, 진정한 이웃 사랑의 정신으로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이 글을 빌어 신자 여러분들께 부산 세계 개발원조 총회를 소개시켜 드리는 것은, 이 회의가 단지 관련된 사람들의 말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특히 우리 교회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입니다.

첫째,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을 돕는 일은 바로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갚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웃 사랑의 의무인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도움이 그저 물질적 전달(원조)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본래부터 부여받았던 존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개발) 관심을 갖는 것 또한 우리 교회의 의무임을 알아야 합니다.

모쪼록 이번 회의가 그저 하나의 국가적 잔치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와 신자들 모두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 번 일깨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또한 인간 존엄성이 결코 침해당하지 않도록 온갖 장애물을 제거하고 도의와 덕행을 도와주고 북돋아주는 모든 것을 증진시키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교황 요한 23세, ‘어머니요 스승’, 179항) ⊕

#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에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까지



글 ● 국제협력부 김다해

●●●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OECD가 주최하는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이하 “부산총회”)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렸습니다. 세계 160개국의 장관들과 정부 수반들, 이명박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을 비롯한 60여 개의 국제기구 수장, 시민사회 대표와 민간기업, 개발연구소들을 포함하여 3,500여명이 참가한 최고위급 회담으로 앞으로의 해외원조의 개발효과성에 대한 방향과 정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로 진행 되었습니다.

부산총회에 앞서,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는 약 475개 시민사회단체와 일부 정부기관을 포함한 관련기관에서 온 600여명이 참여한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포럼은 부산총회를 준비하는 사전 준비 포럼으로서, 부산총회에서 논의될 주요 의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공통 전략을 수립하여 시민단체들의 입장을 부산총회에 전달했습니다.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서는 ‘부산 세계시민사회포럼’에 부분부장 민경일 신부 외 4명의 직원들이 참가하였고, 민 신부는 부산총회에도 한국 시민사회 대표 3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하였습니다.

지구촌빈곤퇴치와 사회정의 실현을 위하여 일하는 개발NGO의 활동가로서 바라본 부산총회의 최대의 성과는 해외원조에 대한 수원국의 민주적 주인 의식(Democratic ownership)의 중요성과 더불어 한마음한몸운동본부와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역할과 기여를 인정했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본부를 포함한 시민사회가 지향하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RBA)을 총회가 채택한 공식문서에 언급함으로써 그 중요성을 간접적으로나마 인식했다는 점입니다. 의아할 수 있겠지만 사실 해외원조 활동에 있어 가시적이고 단기적인 결과물만을 중시하다 보니 해외원조를 포

함한 개발과정에서 인권이 무시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번 부산총회가 해외원조의 주체를 기존의 공여국 중심에서 탈피하여 신흥 공여국(BRICS)과, 민간기업,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확대하여 포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주체자들의 역할 분담과 책임 소재에 대한 구체적 결정이 없어 공허한 약속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번 부산총회에서는 각국 정부들이 민간기업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컸던 것에 비해, 정작 개발에 참여하는 민간 기업이 지켜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또한 한계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해외원조의 주체가 확대되어 원조금액이 증가하고 재원이 다양화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목표와 지표, 행동계획이 없는 원조는 더 큰 불행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부산 세계시민사회 포럼에 참석하면서 많은 배움과 경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전 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같은 주제로 의견을 나누면서도 각 나라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르다는 점, 그리고 대륙 간의 협력과 교류를 바탕으로 활발하고 적극적인 국제 연대 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느꼈습니다. 또 총회 바로 직전 3일이라는 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모인 수백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시민사회 내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또 모을 수 있는 지속적인 준비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한계를 넘어 이번 부산총회를 계기로 원조의 여러 문제점들과 뒤쳐진 국내의 개발원조 정책이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되길 바랍니다. 더불어 부산 파트너십의 이행과정에서 시민사회와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하며 이를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길 기대합니다. ⊕

# 2011 연말연시 나눔 토크콘서트, “별을 따줄게”



별을  
따줄게

“꿈을 가진 아이들... 그리고 그 꿈을 이루도록 돕는 희망의 별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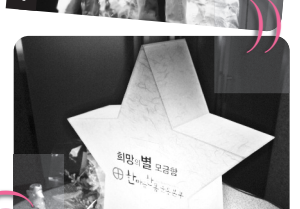
... 누구나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처해진 어두운 현실 속에, 손에 닿을 수 없는 하늘의 별을 바라보듯 꿈꾸기를 처음부터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가난, 질병, 자연재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꿈을 꿀 수조차 없는 지구촌 빈곤국가 친구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대지진으로 가족을 잃은 아이티의 어린이들, 백혈병과 난치병으로 수년째 병상에 머물러 있는 친구들을 위해 ‘희망의 별’을 따주면 어떨까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는 크리스마스를 열흘 앞둔 지난 12월 14일(수) 저녁 7시, 홍대앞 CY씨어터에서 2011 연말연시 나눔 토크콘서트 ‘별을 따줄게’를 열고, 절망에 빠진 소외당하는 모든 이웃들을 위해 희망의 별을 따주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대학생 및 청년 1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콘서트는 1부에서 영화배우 유지태 나레이션의 영화 ‘희망의 별(이케지레템바)’를 함께 관람하며 남아공 빈민촌의 절망 속 아이들이 축구를 통해 희망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고, 2부에서는 ‘좋아서하는밴드’의 재능기부 공연으로 희망을 함께 노래했습니다.

또한, 이날 콘서트에는 ‘희망의 별(이케지레템바)’ 다큐멘터리 영화를 직접 제작한 이흥석 감독이 참석해 그가 본 희망의 별 이야기를 들려줬고, ‘좋아서하는밴드’ 공연 중간에는 본부 ‘생명수호천사’ 홍보대사인 탤런트 서현진 씨가 깜짝 출연해 떠났누리 시절의 경험과 지구촌 빈곤퇴치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관객들이 입장하며 적어 낸 ‘별 메시지’의 사연을 하나씩 소개해 주며 공연장을 희망의 별로 가득 채웠습니다. ☺

1. “별을 따줄게” 인트로 영상
2. 영화 ‘희망의 별’을 만든 이흥석 감독
3. ‘좋아서하는밴드’의 멋진 공연
4. ‘생명수호천사’ 홍보대사 서현진 씨
5. 빈곤국가 어린 친구를 위한 ‘희망의 별’ 모금함
6. CY씨어터 공연장 입구에 세워진 ‘희망의 별’ 사진판넬



# OBOS NEWS

## 국제협력

###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 참석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가 세계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일원으로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1일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HILF4)’에 참석했습니다. 원조효과성 고위급 회담이면서 OECD DAC이 개최하는 장관급 회담인 이번 회의는 2,3차 회의에서 채택된 ‘파리선언’과 ‘아크라행동강령’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발협력 방향과 정책에 대하여 논의되었습니다. 이번 회의에 각국 정부 대표자와 OECD 관계자, 전 세계 300명의 시민사회단체 대표를 포함하여 총 3,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 참가



지난 11월 26일, ‘부산세계시민사회포럼(BCSF)’이 부산 해운대 그랜드호텔에서 열렸습니다. 본부에서는 부본부장 민경일 신부와 국제협력부, 모금홍보부 실무진이 참여했으며, 특히 민 신부는 본 행사를 주최하고 있는 KoFID운영위원 및 홍보위원장을 수행하며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 「띠앗누리」13기 선발



지난 11월 15일, 국제청년자원활동 「띠앗누리」 13기가 선발되었습니다. 이번에 선발된 띠앗누리 13기는 10명이라는 소규모의 단원으로 구성되어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캄보디아에서 현지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띠앗누리」 13기는 캄보디아로 자

원활동을 떠나기 위한 첫걸음으로 11월 19~20일 합정동 마리스타 교육원에서 1박 2일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으며, 출발에 앞서 네번의 배움터를 통해 다양한 교육을 받으며 조별구성 및 여러 기본교육과 친목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 ‘제2회 대한민국나눔대축제’ 참가



지난 10월 8일(토)~9일(일) 양일간 올림픽공원에서 나눔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하는 ‘제2회 대한민국 나눔문화 대축제’에 본부 국제협력부가 참가하여 지구촌의 빈곤퇴치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본부는 10월 17일 ‘지구촌 빈곤퇴치의 날’을 맞이하여 2011년도 슬로건으로 선정된 “Better Aid for World, We Want!”라는 주제 아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인증샷 촬영’ 및 ‘희망의 풍선 이벤트’, ‘사랑의 저금통’ 나누어주기 행사 등을 전개, 참여자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았습니다.

## 생명운동

### 장기기증 홈페이지

### ‘www.obos3042.or.kr’ 개설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장기기증센터가 온라인상에서도 장기기증 신청이 가능한 인터넷 홈페이지(www.obos3042.or.kr)를 개설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김수환추기경연구소의 지원으로 제작된 이 웹사이트는 공인 인증을 통해 장기기증희망신청은 물론 본인의 장기기증신청 조회까지 가능하도록 제작되어 기존 우편이나 센터에 직접 찾아가 신청하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장기기증 전용홈페이지가 구축되고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장기기증희망신청이 가능해 집에 따라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신청자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 ‘제1회 명동생명문화축제’ 개최



지난 10월 8일,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는 젊은이들이 거부감 없이 생명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문화제 형식의 ‘제1회 명동생명문화축제’를 열었습니다. 이날 축제에 참가한 학생들과 자원봉사자 150여 명은 명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시민들에게 풍선을 나눠주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고, 명동거리와 지하철을지로역 앞에서는 플래시몹 공연도 열렸습니다. 이날 공연에는 지난 7월 한마음한몸 자살예방센터의 ‘생명수호천사’ 홍보대사로

선정된 탤런트 서현진(가브리엘라, 26)씨가 마이클 잭슨의 음악에 맞춰 춤을 선보였으며, 이 밖에도 ‘사랑의 댓글 달기’ 이벤트, 인디밴드들의 재능기부 문화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 사랑과 후원에 감사 드립니다

본부 양미경 홍보대사,  
‘한국나눔봉사대상’ 수상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홍보대사 탤런트 양미

경(엘리사벳)씨가 지난 12월 5일, 서울 소공동 조선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2011한국나눔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양미경 씨는 바쁜 연예활동 중에도 2004년부터 본부 홍보대사로 활동하면서 지구촌 빈곤퇴치 및 장기·조혈모세포 기증, 자살예방운동 등 생명나눔운동 홍보, 대국민 나눔문화 확산 등에 크게 기여한 공로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양미경 씨는 “개인적으로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딛게해준 한마음한몸운동본부 가족들에게 깊이 감사드리고, 이 기쁨과 행복을 묵묵히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수많은 자원봉사자와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 인천박문초, 태국 홍수피해 긴급구호성금 전달



인천박문초등학교(교장 윤영숙 수녀)는 ‘제17회 박문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을 개최하면서 대홍수로 삶의 터전을 잃고 고통 중에 있는 태국의 이재민들을 돕고자 티켓 판매금과 모금액 3,324,000원을 긴급구호성금으로 본부에 기탁했습니다. 지난 11월 30일 저녁 7시, 부평아트센터에서 개최된 ‘박문오케스트라 정기공연’은 매년 공연 수익금을 불우이웃과 함께 나누는 나눔 연주회로 개최해 왔습니다. 인천박문초등학교 어린이 친구들과 교직원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온전히 잘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위:만원)				
사업명	성명	병명	병원	진료비
백혈병·난치병	이** (여/5세)	반안면왜소증/소아증	서울아산병원	700
어린이지원사업	김** (남/11세)	엔테로이스성뇌척수염	고대구로병원	1,000
	허** (여/12세)	다발성 경화증	국립암센터	1,000
	강** (남/16세)	비세포 림프종	국립암센터	900
	강* (여/10세)	골육종	국립암센터	800
긴급환우	박** (남/8개월)	급성골수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변** (남/10세)	간헐사시(양안)	인천성모병원	320
지원사업	이** (여/56세)	만성골수성백혈병	국립암센터	1,000
	장** (여/27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서울성모병원	900
	시라이*** (여/2세)	난치성간질	인하대병원	700
	김** (여/7세)	뇌성마비	서울대병원	1,000
	김** (여/51세)	유방암	국립암센터	200
	박** (여/15세)	대장암 4기	국립암센터	1,000
장기이식대기자	김** (남/39세)	확장성심장근육병증(뇌사자 심장, 신장이식)	서울대병원	1,000
	전** (여/47세)	만성신부전(신장이식)	서울성모병원	900
지원사업	서** (남/48세)	간경화	서울아산병원	1,000
	유** (남/41세)	말기 신장병	서울성모병원	900

※ 빠른 패유를 바랍니다.

## 한마음한몸공지

# 2011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일괄발급 안내

1년동안 사랑과 나눔으로 함께 해 주신 한마음한몸운동본부의 모든 후원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말정산기부금영수증이 2012년 1월에 일괄 발송될 예정입니다.

- **대상**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정기후원 혹은 1회 이상 일시후원하신 후원금 내역이 있는 회원 전체
- **발송기간** 회원님의 등록주소지로 2012년 1월 중 일괄 발송
- **안내사항** 자동이체후원자 가운데 주소나 기타 변경사항이 있으실 경우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1월 일괄발송 기간 전에 영수증이 필요하신 경우 전화주시면 개별발급해 드리겠습니다.
- **문의** 02-727-2285, 2288

## 생애 첫 기부로 따뜻한 세상 만들어요!

아기의 돌잔치·생일·특별한 날 비용을

한마음한몸운동본부에 기부한 엄마, 아빠가 있습니다.

아기는 아직 모릅니다. 왜 자신의 생일 사진이 남들과 다른지.

하지만 언젠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면 다른 시작을 열어준

부모님이 많이 고맙고 행복해질 것입니다.

- 김율 (2010.09.02생) 父 김미루/ 母 이현정),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안이준 스테파노 (2010.06.25생) 父 안세현/ 母 김정아),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효주 스텔라 (2010.08.27생) 父 박인식/ 母 박소영),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양연준 미카엘 (2010.09.08생) 父 양정욱/ 母 이혜순), 2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김승현 테오도로 (2010.09.08생) 父 김기성/ 母 권은주),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유민 (2008.08.05생) 父 정동기/ 母 류은선), 5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문시연 (2010.08.28생) 父 문성민/ 母 최혜영),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나소윤 세라피나 (2010.08.10생) 父 나상오/ 母 구상희), 3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전소는 가브리엘라 (2010.09.16생) 父 전일수/ 母 안미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전예지 (200.09.17생) 父 전재현/ 母 임수민), 5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서승민 (2011.06.24생) 父 서재후/ 母 신찬영),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최진현 프란치스코 (2010.09.10생) 父 최범수/ 母 김미숙),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윤승호 라우렌시오 (2010.08.11생) 父 윤민록/ 母 최민정), 3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김재용 라파엘 (2010.09.29생) 父 김만수/ 母 이지영),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율리 미카엘라 (2010.09.11생) 父 이동훈/ 母 이강미),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송리나 에스텔 (2010.07.05생) 父 송근우/ 母 박유나),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준수 제미노 (2007.02.04생) 父 박진철/ 母 김현아), 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준희 소하레타 (2010.09.22생) 父 박진철/ 母 김현아), 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건우 프란치스코 (2010.10.04생) 父 김기용/ 母 황혜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재이 글라라 (2007.11.12생) 父 김승태/ 母 임옥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민준 베네딕도 (2010.08.06생) 父 김승태/ 母 임옥기),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임선율 가브리엘 (2010.10.01생) 父 임상락/ 母 홍주영),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지윤 (2010.10.11생) 父 이광재/ 母 정지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해운 (2010.09.13생) 父 정우준/ 母 이호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안수빈 라파엘라 (2010.10.12생) 父 안성원/ 母 박나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민서연 메리워드 (2010.11.08생) 代母 김선아), 2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준수 사도요한 (2008.10.11생) 父 이종혁/ 母 김희선),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최만원 미카엘라 (2010.09.17생) 父 최용원/ 母 김상경), 7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지인 에스텔 (2011.07.13생) 父 이윤진/ 母 우혜영),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규빈 (2010.11.05생) 父 이한신/ 母 손유미),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김민주 (2011.07.26생) 父 김OO/ 母 노OO),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시은 (2010.10.27생) 父 김영후/ 母 서현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지하운 루치아 (2010.09.26생) 父 지원호/ 母 강명주), 576,100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김민준 루카 (2010.10.23생) 父 김유진/ 母 강선모),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안서윤 (2010.10.22생) 父 안동성/ 母 류영혜), 67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박민규 토마스아나스 (2010.09.25생) 父 박찬하/ 母 전수경),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신지우 크리스티나 (2010.12.17생) 父 신희철/ 母 양정임),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연상훈 (2011.01.07생) 父 연경호/ 母 홍정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홍서윤 (2010.12.03생) 父 홍성일/ 母 황현진), 36만5천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박지운 (2011.07.30생) 父 박준영/ 母 노혜진),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승현 (2010.08.17생) 父 김성호/ 母 최윤미),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황정원 베드로사벨 (2010.12.09생) 父 황재선/ 母 주리),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노윤아 엘리사벳 (2010.11.05생) 父 노승민/ 母 김하나), 14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시윤 (2010.12.05생) 父 장성림/ 母 전해연),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주호 루가 (2010.10.15생) 父 김기준/ 母 김금선), 3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이은총 마틸다 (2010.11.12생) 母 남소화), 36만5천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준하 니콜라스 (2007.12.27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2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현서 (2010.06.09생) 父 장성용/ 母 오경숙), 2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우찬 (2010.11.24생) 父 이동희/ 母 정선화),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정희원 돈보스코 (2010.11.22생) 父 정다운/ 母 이승은), 100만원(지구촌 청소년 교육 지원)
- 김현태 다니엘 (2010.11.28생) 父 김종원/ 母 정유선), 8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한별 (2010.12.13생) 父 장일주/ 母 김은나),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김주원 안젤라 (2010.12.07생) 父 김석진/ 母 임경아),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이승윤 가브리엘 (2010.11.28생) 父 이현정/ 母 신은총), 3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장도원 (2010.11.29생) 父 장재업/ 母 여은혜), 10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송해성 미카엘 (2011.08.26생) 父 송예원/ 母 한유리), 5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왕준범 (2011.06.26생) 父 왕형민/ 母 김은미), 10만원(백혈병·난치병 어린이돕기)



#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품질하는 곳

##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신청서

나는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고자 아무런 대가 없이 나의 장기를 기증하고자 합니다.

KONOS

등록번호

이름	세례명	본당
주민등록번호	전자우편	
주소	장기기증 등록증 발송을 위해 주소를 정확히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이동전화	
정보수신여부   <input type="checkbox"/> 전자우편	<input type="checkbox"/> 이동전화 문자메시지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기증형태   (중복 선택 가능) <input type="checkbox"/> 뇌사 시 장기등 기증	<input type="checkbox"/> 안구(각막) 기증	<input type="checkbox"/> 인체조직 기증
운전면허증에 장기등기증희망자라는 사실을 표시하기를 원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예	<input type="checkbox"/> 아니오 * 운전면허증 신규발급, 갱신, 재발급 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 15조 제 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7조에 따라 한마음헌몸장기기증센터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법정대리인의동의 (미성년자의 경우)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관계	주민등록번호		

### >>> 첨부서류

- 신청인이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 동의하는 사람이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신청인이 정신질환자나 지적장애인인 경우 : 정신과 전문의가 본인 동의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소견서 1부

## '하루 100원 모으기' 자동이체 출금동의서

이름(세례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후원금액   <input type="checkbox"/> 3,000원 <input type="checkbox"/> 5,000원 <input type="checkbox"/> 10,000원 <input type="checkbox"/> 기타( )원	
출금일자   <input type="checkbox"/> 매월 5일 <input type="checkbox"/> 매월 20일	● 출금통장에 '한마음헌몸'이라 표시되며, 매달 약정일에 자동 출금됩니다. ● 연말 소득용 납입명세서에 발급됩니다.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계좌주명	계좌주 주민등록번호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계좌주   통장의 인감(서명)으로 날인하시기 바랍니다 (인) (서명)

### >>>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자동이체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 /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 보유 및 이용기간 :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 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여야 자동이체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input type="checkbox"/> 동의함 <input type="checkbox"/>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영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이름	반드시 자필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 소중한 100원, 큰 나눔의 씨앗입니다

하루 100원 모으기 운동

100원이라는 작은 씨앗으로 사랑과 나눔이라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절취선을 따라 오려주세요



희망의 씨앗 심기  
장기기증,  
제가 하겠습니다

생명나눔과 희망의 씨앗을 심는  
가장 쉬운 방법

생명나눔은 진행중!

<http://www.obos3042.or.kr>

이제 '장기기증' 희망신청은 이곳에서 하세요.

보내는 사람

\_\_\_\_\_

□ □ □ - □ □ □

우편요금  
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0.3.9 ~ 2012.3.8  
  
서울중앙우체국  
승인4151호

접는선

이 부분은 반으로 접으세요

한마음한몸운동본부 One-Body One-Spirit

서울시 중구 명동길 80 가톨릭회관 413호  
tel 02.774.3488 fax 02.776.7879  
[www.obos.or.kr](http://www.obos.or.kr)

1 0 0 - 8 0 9